

# 해설 프로그램 개요서

성 명	정승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본 <input type="checkbox"/> 간이	<input type="checkbox"/> 자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정
대 상	30~40대 신혼 부부 10쌍.		
제 목	소년 소녀에서 어른이 되었네요.		
해 설 주 제	부부 사이의 온난화 현상에 대비하자.		
활 동 목 표	국내에서 재배 성공한 열대 과일의 종류를 알아보자. 열대 과일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자랄 수 있는지 알아보자. 결혼으로 삶이 크게 변한 것과 지구의 변화를 빚대어보자.		
해 설 재 료 (준 비 물)	코팅사진, 아보카도 열매, 구급약 등	소요시간(분)	9
유 의 사 항	해설자보다 앞서가지 않기. 지정된 탐방 공간 벗어나지 않기.		

##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 단계	해 설 주 제	주 요 내 용	준비물 (교구재)	소요시간
도입	탐방객과 친근감 형성	해설자와 대상의 연령대가 비슷한 점을 적극 활용해 공감대를 형성한다	코팅사진	1
주제별 해 설	아보카도 나무 소개	아보카도의 특성과 해설자가 직접 키우는 아보카도 나무 사진을 보여준다.	아보카도 코팅사진	1
	아보카도 재배기 1	처음 실패했던 아보카도 재배기를 들려준다.	코팅사진	1
	아보카도 재배기 2	두 번째 성공했던 아보카도 재배기와 장성한 현재 모습을 보여준다.	코팅사진	1
	아보카도 재배기 3	재배기 중 위기를 겪었던 사연을 들려준다.	코팅사진	1

해설 단계	해설 주제	주요 내용	준비물 (교구제)	소요시간
주제별 해설	위기의 극복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들려준다.	코팅사진	0.2
	열대식물의 재배	열대식물의 재배가 늘고있는 대한민국 과수농가.	코팅사진	1
	대한민국의 기후 변화	한국의 기후변화와 아열대 기후의 정의		1
마무리	온난화는 막아야 한다.	세계적 기후 변화와 부부 간의 기후변화를 빗대어 깨달아보는 시간.	그래프 자료	1.8

# 해설 프로그램 시나리오

성명	정승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본 <input type="checkbox"/> 간이	<input type="checkbox"/> 자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정
대상	30~40대 신혼 부부 10쌍.		
해설 주제	부부 사이의 온난화 현상에 대비하자.		

##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 단계	해설 주제	주요 내용
도입	탐방객과 친근감 형성	<p>안녕하세요, 자연환경해설사 정승호입니다. 제가 오늘 오신 분들 나이를 살펴봤는데 거의 제 또래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릴 때 'H.O.T'나 '젝스키스'냐로 고민하셨죠? (탐방객과 소통) 아, 이쪽 분은 god를 좋아하셨대요. 그렇죠! 남성분들에겐 핑클이나 S.E.S냐도 큰 고민 거리였을 거예요. 이처럼 아이돌(Idol)을 좋아하던 우리가 벌써 아이들을 키울 나이가 되었네요. (눈치보며) 라임이 괜찮았죠?</p> <p>그 시절 우리는 친구들끼리 별명을 붙여주곤 했었어요. 뭐 생김새 때문에 생긴 별명도 있을 테고, 이름 때문에 붙은 유치한 별명도 있었어요. 아! 혹시 아내분의 별명이 궁금하시다면 목숨 걸고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탐방객 피식 웃어준다.)</p>
	아보카도 나무 소개	<p>제 원래 별명은 머리가 커서 대두였는데 요새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바로 '아보카도 아빠'입니다.</p> <p>결혼도 안 한 제게 '누구 아빠'라니 황당하지만, 싫지는 않습니다. (아보카도 꺼내며) 이건 아보카도라는 목련아강 녹나무과에 속하는 열대 과일입니다. 사실 제가 이 나무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것도 일곱 그루나.</p> <p>(코팅자료 보이며) 첫째 정열이, 둘째 허부기부터 일곱째 잎새까지. 여러분들 눈엔 고놈이 고놈 같아 보여도 제겐 이름까지 붙여줄 정도로 저마다의 사연 있는 녀석들입니다.</p>

해설 단계	해설 주제	주요 내용
주제별 해설	아보카도 재배기 1	가장 먼저 태어난 정열이는 하마터면 싹이 트지 못했을 운명이었어요. 3년 전 마트에서 호기심에 아보카도를 사왔는데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란다 화분에 성질내듯 버려뒀죠. 그게 싹을 틔워 제 눈에 발견된 겁니다. 처음엔 무슨 잡초가 이렇게 큰가 불통거리며 뽑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랄까, 잡초라기엔 싹이 비싸보이는 거예요. (초롱초롱한 눈빛) 절 보면서 '나 뽑으면 손해다~?' 이러는 느낌이었죠. 인터넷을 이 잡듯 뒤져본 후에야 아보카도 싹이란 걸 알았고 옮겨심기까지 해줬는데... 안타까운 건 몇 년째 더 자라지 않고 있어요.
	아보카도 재배기 2	정열이는 잘 키우지 못했지만 덕분에 다른 아이들과 만날 수 있었어요. 싹 트는 거 또 보고 싶으니까, 아보카도 과육 맛이 진짜 이상한데도 주머니가 허락하면 꼭 사먹었거든요. (코팅자료 보이며) 둘째 허부기는 제가 마음먹고 흙의 영양 상태까지 고려하며 키운 자랑스러운 아이입니다. 물론 농사에 무지한 제가 마음먹고 덤빈다고 쉽게 싹이 나는 건 아니었어요. (씨앗 꺼내며) 씨앗을 이쑤시개로 삼발이처럼 만들어, 물에 3분의 1정도 담가두면 싹이 튼대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두어달쯤 지났나? 포기하려고 토마토 화분에 물어버렸는데! 싹이 텄습니다. 그 후 허부기는 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가슴 높이까지 우람하게 자랐어요. 줄기는 이제 수피라고 불려도 될 만큼 나무 느낌이 나죠. 얼마 전 1주년을 기념해 꽃집에서 영양가 좋은 흙을 뿌려줬더니 터 튼튼하게 자라네요!
	아보카도 재배기 3	막내 잎새는 이름처럼 가녀린 녀석입니다. 이파리 색도 형들처럼 진초록색이 아닌 연두색에 가깝고요, 그마저도 말라죽는 부위가 있어요. 여섯째까진 무난하게 자라던데 이 녀석만 유독 허약했죠. 그런데 허약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느 날 잎새가 자라는 화분에서 조그마한 날벌레를 발견했어요. 처음엔 그저 흔해빠진 초파리이겠거니 했는데, 낚새가 이상했죠. 그래서 파리 종류를 전부 찾아보고 비교해봤더니 '뿌리 파리'라는 녀석이었던 거예요! 이름대로 유충이 작물 뿌리를 잘근잘근 갉아먹어 고사시키는 나쁜 해충이었죠. 성충의 번식력도 좋아 한 번에 최대 300개까지 알을 낳는, 정말 아보카도 아빠의 최대 위기였습니다.

해설 단계	해설 주제	주요 내용
주제별 해설	위기의 극복	<p>위급할 땐 역시 문명의 힘을 빌려야죠. 한동안 물을 주지 않아 흙의 습도를 낮춘 뒤에, 가장 비싸고 강력한 살충제를 한 달 정도 뿌려줬어요. 한통을 다 쓸 때쯤 되니, 잎새도 살아나더라고요. 다행히 지금은 형들보다 더 키가 클 정도로 잘 자라는 중입니다.</p>
	열대식물의 재배	<p>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는 제 자랑이나 다름없었어요. 대체적으로 온난대기후인 대한민국에서 열대 식물의 재배를 3년째 이어가고 있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근데 최근 들어 열대 식물의 대량 재배에 성공한 농가가 많아졌대요. 제주도에서 파파야, 패션 후르츠가 생산되고 있고요, 바나나는 제주도에서 시작해 경상도에서도 자라고 있어요.</p> <p>저희 아버지만 해도 어릴 때 바나나 한 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하셨어요. 가끔 침팬지 흉내를 그럴듯하게 내시던데, 바나나에 한이 맺혀서 그랬나 봐요. 아무튼 비싼 돈 주고 수입해야 했던 희귀 과일, 바나나가 이젠 국내에서 재배된다니 세상이 많이 변했죠?</p>
	대한민국의 기후 변화	<p>그런데 이런 변화가 꼭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기후가 변한 원인이 '온난화'이기 때문이에요. 분명 지구는 이산화탄소와 프레온, 메탄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온난화가 세계적인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p> <p>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온대와 냉대기후가 뒤섞여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아열대 기후로 변하는 과정에 있어요. 아열대 기후란 말이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쾨펜 구분법에는 없는 말이지만, 글렌 토마스나 존 그리피스의 주장을 받아들인 우리나라 기상청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최한월 평균기온이 5.1 ℃ 이상 18 ℃ 미만인 기후가 바로 아열대기후이다. 네, 우리나라의 봄과 가을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p>

해설 단계	해설 주제	주요 내용
<p>마무리</p>	<p>온난화는 막아야 한다.</p>	<p>우리는 소년 소녀였던 시절을 지나 이제 누군가의 아빠, 엄마라고 불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동안 지구의 기후도 변했죠.</p> <p>하지만 지구의 기후변화는 백곰의 서식지를 없애는 등 일종의 재앙인 반면에, 여러분은 축복받을 변화라서 다행이에요.</p> <p>(탐방객 웃음 유도) 네? 이쪽도 재앙이시라고요? 아, 벌써 그러면 힘드실 텐데.</p> <p>중요한 건 지구도 여러분도 온난화 현상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온난화의 원인으로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은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입니다. (해설자 머리를 가리키며) 아 제 대두 말고요.</p> <p>또한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 것은 인류의 화석연료의 사용 때문이라고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땅속에 있는 화석연료는 거대한 탄소 저장고의 역할을 하는데 그걸 연소시켰으니 대기 중에 엄청난 양의 탄소가 녹아있다는 뜻이 되니까요.</p> <p>물론 이 같은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라는 기구의 주장이 완벽한 진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인간의 활동이 원인이란 점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프 보여주며) 이산화탄소 기록 그래프를 보시면 더욱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래서 UN(United Nations)과 같은 국제기관들은 이산화탄소 배출권, 교토 의정서를 통해 온난화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어요.</p> <p>가능하다면 여러분들도 유나이티드 하셔서 개인의 이기심이 아닌 가정의 화목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의 기후가 눈에 보이지 않게 변한 것처럼, 가정의 기후도 보이지 않게 너무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기상청장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p> <p>자, 그럼 언제나 쾌청한 가정 꾸려나가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자연환경해설사, 아니 아보카도 아빠 정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p>